

전쟁방지는 국정지표 수행의 전제

민방위대 창설 6주년 기념식 유시

1981년 9월 22일

친애하는 전국의 민방위대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과 힘의 대결양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국제정치기류속에 우리 스스로의 생존권확보를 위한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짐해야 할 시점에서 민방위대 창설 6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먼저 전국의 민방위대원 여러분이 각자 자기 고장과 일터에서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한편으로 튼튼한 안보를 다지는 대열에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대해 격려를 보내고자 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9월초 18호 태풍으로 인한 수해때 민방위대원 여러분이 적극적인 방재활동으로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힘쓰고 이를 신속히 복구하는 데 기여한 것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민방위대는 지난 1975년 인도지나반도의 공산화로 동아시아의 안정이 동요되고 있는 가운데 창설되었습니다.

당시 북한공산집단은 주변정세의 변화에 편승하여 대남적화 야욕을 노골화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는 긴박한 국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남녀노소, 전방과 후방을 가리지 않고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국가의 보위를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방위대는 그후 짧은 기간안에 범국민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부단한 교육훈련과 제도 및 운영면의 개선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방위능력을 드높이면서 기동성 있는 방재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국제정치환경은 6년전의 상황과 비교하여 결코 호전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1980년대의 국제정세는 격동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도처에서 각국간의 긴장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주변강대국들의 이해가 교우하는 전략적 요충에 자리잡고 있어 긴장 상태가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북한공산집단은 우리의 거듭된 대화재발노력을 외면하면서 평화거부 태

도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들은 침략의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공산집단의 6.25남침실패후 한반도에서 유지되어 온 불안한 휴전상태는 진정한 평화 질서의 정착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거나 대비태세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곧 북한공산집단의 모험주의전략을 고무할 것입니다.

국민의 단합을 바탕으로 국군의 전력증강과 방위산업의 육성, 그리고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강화 등 자주국방태세확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당위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정치의 토착화와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건설 등을 국정의 지표로 삼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야 말로 이 모든 과업수행의 전제입니다.

동족간의 유혈충돌의 재발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회피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만도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백령도 상공침범, 미군 정찰기에 대한 미사일공격, 우리 전방초소에 대한 총격사건 등 도발책동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은인자중하고 있는 것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또다시 재현할 수 없다는 중정 때문인 것입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이러한 성의와 인내를 결코 약세의 표현으로 오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수호할 결의와 힘을 갖추고 있으며, 선부른 불장난을 응징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울이고 있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국제적 신뢰와 지지는 그 어느때보다도 확고하며, 우리 정부와 국민은 안정기반위에서 제 2의 도약을 위해 착실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민방위대원 여러분은 튼튼한 안보체제를 굳게 떠받치는 지주중의 하나로서 이러한 국민적 전진의 대열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민방위대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지워진 사명과 직분을 한시도 잊지 말고 민방위교육훈련에 솔선 참여하여 물샐틈없는 후방경계태세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난과 산업화에 따른 각종 재해의 증가에 대비하여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방위대가 이처럼 후방방위전력의 일익을 담당하고 자율방재조직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때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한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전국의 4백 30만 민방위대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거듭 치하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